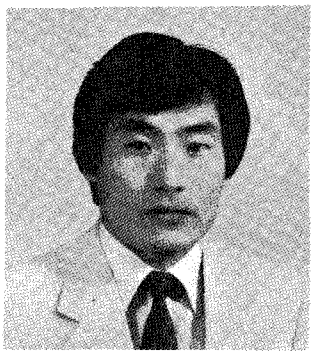
생산비 절감과 상품성 높은 축산물 생산해야



박 달 근
(진양사료연구실
중앙대 산업대졸)

옛부터 국가간의 교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필요의 산물이며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입보다 수출에 큰 역점을 두었고 국가간의 우호적 유대를 위하기 보다는 당면한 이익에 급급하는 현실에 와 있다.

이러한 세계의 시장여건에서 우리가 처한 대외 무역상황은 어느시기 보다도 헤쳐나가기 힘든 분위기에 쌓여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5분의1을 점유하며 시장을 좌우하는 미국에 대해 우리의 수출은 크게 좌우하여 왔으며 그 수출품목의 대부분은 농축산물이 아닌 공산품으로써 그것마저 겐킨스법안이니 덤핑이니 하여 수출규제의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수출노력에 대해 맥빠지게 하는 슬픈사연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계획에 대해 부족하나마 소견을 제시하고 싶다.

우리는 이미 80년을 전후하여 외국으로부터 많은 농축산물을 수입해 왔고 거기에 대한문제점도 많이 들어 났으며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 파동치고 있고 그 후유증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를 보면 60년대에는 그래도 90%이상을 유지해 왔는데 비해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50%이하로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며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의 폭발현상속에 식량의 무기화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식량자급도는 필연적으로 높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는 비록 국토를 주곡생산에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좁은면적에 초지를이용하거나 단위면적당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축산물의 생산이 더욱 긴요한 시기에 와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에서 부터 거센 수입개방의 압력에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압력은 단순히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에 의해 해소시키기 보다는 2차·3차 산업에로의 전향이 아직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1차산업이 한나라 산업의 기반이 되고 1차산업의 융성이 곧 여타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며 미래에 대해 안전성이 약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미간의 무역마찰에 의해 우리의 시장은 매우큰 난관에 봉착되어 있으나 미국은

그간 우리로 부터 80년 이전까지 많은 무역 흑자를 보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80년 이후 몇년간 적자에 대해 이를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몸부림치는 모든 규제조치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반드시 농축산물이 수입개방이라는 명제에 희생되어서는 안되겠고 반드시 농축산물 생산의욕은 날로 고취되어져야 할것이다.

배합사료의 수입개방으로 86년부터 배합사료업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리라 예상된다. 현재도 배합사료 원료의 8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나머지 20%도 국내의 조달이거나 외국으로부터 간접조달이 되는데 수입개방이 되었을때는 20% 만큼의 국내산업은 타격을 입어야 하는 셈이 된다. 물론 배합사료의 수입은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고 이용하는 양축가는 매우 드물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산업이 다져져 가는 기반이 위축되거나, 상승되어가는 기술개발에 다소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두렵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에서 배합사료업계나축산물의 생산자는 다같이 새로운 각오로 일대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앉아서 걱정하는 자세는 이제는 지양해야 할것이다. 외부로 부터 받는 수입개방압력에 현명한 대처방안은 우선 외국보다 높은 축산물의 생산코스트를 낮추는데 역점을 두어야 겠으며 국내의 부존자원의 최대한 개발활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배우지 못하거나 일거리가 없는, 직장이 없는 실직자가 손을 대는 축산업이 아니고 그야말로 축산업에 모든 정열을 쏟아 적정이윤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애축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정생산규모를 유지하고 가격의 안정을 꾀해야 되겠다.

이에 정책입안자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계획으로 농축산물 생산자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고의 심혈을 기울여 나아갈때 반드시 우리가 목표하는 식량자급자족은 달성될 수 있을것이다.

우리나라가 제2의 일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미국의 고위공직자들의 착각된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어 놓도록 우리 축산인들이 노력해야될 것이다.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싯점에서 우리들은 전적으로 반대만하며 이자리에 안주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농축산물 생산에 임한다면 오히려 국가경제와 나 자신의 발전에 마이너스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농어민과 양축가는 한마음이 되어 생산 코스트를 낮추는데 적극 노력해야 되겠고 생산된 축산물이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의 잔류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야 하겠으며 위생적인 축산물의 가공처리도 잊지 말아야 될줄 믿는다.

또한 외국으로 부터 우리나라를 찾아 주는 손님이 반드시 우리의 축산물을 함께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때 우리의 축산업기반은 날이 다르게 발전해 가고 튼튼해 질것이며 외국으로 부터 수입이 전혀 필요 없을것이고 수입개방 압력에 대처하는 길이 될 것이다. 또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여 값싸고 올바른 물건을 생산하는데 노력하여 생산출하 가격이 최소한 외국과 동등한 수준은 유지되도록 축산인 모두가 노력할때 수입개방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한 염려가 될것이다.

○적정 생산, 적정 출하로 발전하는 양계산업
○버리고 줍기보다 안버리는 문화국민

— 대한양계협회 정화추진위원회 —